

하트사 - 세계 최초로 제품에 오거닉 국제 인증 받아

일본에서 침장품이나 속옷 등을 판매하고 있는 “하트(HEART)”사는 농약이나 유기 화학 약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오거닉 코튼(organic cotton)으로 만든 침장품, 타월, 속옷 등 36개 품목으로 오거닉 제품 국제 인증을 받았다. 이 인증에서 섬유 관련은 실만이 인증을 받은 사례가 있고, 섬유 제품은 염색 가공 공정에서 여러 화학 약품의 사용이나 이들의 오염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오거닉 인증을 받기도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거닉 인증을 유지하기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이므로 아직 인증 받은 사례가 없었는데, 하트사가 세계에서 최초로 인증을 받았다.

하트사가 받은 것은 세계에서 지명도가 높은 프랑스의 에코서트(Ecocert) SAS와 미국의 NSF의 두 인증 기관의 그룹 회사 에코서트 QAI 저팬의 국제 인증이다. 원료뿐만 아니라 제조, 유통까지 엄격하게 검사하여 증명서를 발행하는데, 현재 약 150점의 농산물이나 화장품을 인증하고 있다.

하트사는 일본 내에서는 유기 농산물이나 이들 농산물의 가공 식품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유기 인증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적 규제가 없어, 자칭 유기 제품이라고 하는 상품이 시장에 범람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속임수가 없는 것을 소비자에게 보내드리고 싶다는 열의에서 에코서트사의 엄격한 검사를 받게 되었다.

하트사는 3년 전부터 제조 공정이 하나로 연속되어 있는 메이커인 다이쇼보(大正紡)를 비롯한 26개사의 협력을 받아 인증을 받는 준비를 해왔다. 원료로부터 운반, 제조, 가공, 제품 수송의 모든 공정에서 오거닉 원료나 제품의

로의 이염이나 오염의 유무에 대한 검증이나 모든 제조 공정에서의 청소 기록 보관 등을 철저하게 지켰다. 제품 한 점마다 오거닉 인증 번호나 제조 번호 등을 붙여, 원료로부터 제품이 출하하는 데까지 모든 제품 가공 처리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짜임새가 만들어졌다.

인증을 받고 나니, 규모가 큰 화장품 메이커, 항공 회사, 백화점 등으로부터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세계에 통용되는 인증이므로 앞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의 수출도 알아보려고 하고 있다. ♣